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타임스타일 개념을 중심으로

김 경 호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우리 사회에도 근래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목전에 도래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드높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고는 베이비부머의 타임스타일(time-style)이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 타임스타일은 개인이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할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유형이다. 타임스타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의 핵심요소는 사회적 지향, 시간적 지향, 기획 지향, 및 다중시간적 지향인데, 이와 같은 네 차원은 여가 서비스 선택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타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여가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Key words: 고령사회, 베이비붐 세대, 여가 서비스, 은퇴, 타임스타일(time-style)]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호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khk944@honam.ac.kr이다.

서론

2018년의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집단은 2010년에 7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인 311만 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철선, 2009).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 둘째,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의 감소, 셋째, 노후에 대비한 보유자산이 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약계층으로의 전락 우려, 넷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치의 하락 등이다(이철선, 2009). 이처럼 미구(未久)에 도래할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대비하여 국가적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드높지만(장후석, 2013), 정작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노년기 이전의 삶이 노동중심 생활이라고 한다면, 노년기의 삶은 여가중심 생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근접하면서 은퇴를 피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노동시간과 경제적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여가활동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리적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소유자로서 경제력·구매력을 갖춘 집단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자아실현에 관심이 많고 진취적·독립적인 성향을 지닌 집단이며,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한 여가문화의 욕구를 지닌 베이비붐 세대는 ‘시니어 문화족’으로 불릴 만큼 창의적 여가 활용과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다(김수봉·

권중돈 · 조한중 · 문병윤 · 김지연,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타임스타일(time-style)이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여가활동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시간의 할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결정은 타임스타일이라고 지칭된다(Feldman & Hornik, 1981).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여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가 서비스 생산자 집단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여가 서비스 소비자 집단의 타임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시간 할당이 여가 활동 및 여가 서비스의 소비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Bergadaa, 1990; Cotte & Ratneshwar, 2003). 여가 서비스의 소비는 곧 시간의 사용이다. 시간은 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들 중의 하나이지만, 시간은 속성 면에서 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은 미래를 위해 축적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장이나 축적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차원의 시간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 속도로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개인적 차원의 시간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남보다 빨리 또는 더디게 흘러간다. 어쨌든 여가 서비스 소비와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시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타임스타일 개념의 이론적 정당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타임스타일은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타임스타일과 여가 활동 사이의 관련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타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여가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타임스타일의 개념, 차원, 영향요인 등 이론적 측면의 정당성을 제공하려

는 하나의 시도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실태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및 영향 요인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은 매우 유사한 의미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념상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조추용, 2003). 그 결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여가활동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노인의 사회참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학문적 논의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이소정, 2009).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들이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또는 각각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박정은·원영애·최은영, 1994). 이와 같은 사회참여의 정의는 노인이 직업 활동이나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노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추구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노인들의 권익운동을 전개하는 집단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윤종주, 1994). 요컨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회참여는 사회적·경제적·구조적 성격이 포괄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가활동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형은 크게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으로 사분할 수 있다(이소정, 2009). 이와 같은 사회참여의 유형 구분은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반적인 사회참여 양상을 잘 대변하는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중심형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영역에의 참여도 비교적 활발한 노인 집단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노인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문화, 운동, 종교, 사교, 정치, 교육 등 사회참여의 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러 영역에 걸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다. 이 유형의 노인들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특히 사회참여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로 보면, 자원봉사중심의 남녀 분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고학력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둘째, 종교중심형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열의가 매우 강하지만 다른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집단을 지칭한다. 즉, 직업 활동과 교육활동에서 미약한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다. 특히 이 유형의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로당과 같은 일상적인 사교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셋째, 직업중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 활동에의 참여가 특히 높은 집단을 말한다. 이 유형의 노인들은 직업 활동 외에도 높은 수준의 사교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업 활동과 사교활동 외의 다른 사회참여는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집단에는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중심형은 경로당 활동을 제외하면 뚜렷이 내세울 만한 사회참여 활동이 없는 집단이다. 조사대상 노인 중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로당중심형이 가장 일반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소속된 노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더 많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거지, 건강상태, 경제수준, 노후준비, 최장기 직업,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 등을 들 수 있다(이소정, 2009).

첫째, 성별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의 성별이 사회참여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두 가지인

데, 하나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더 길다는 점이고 (즉,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더 많고), 다른 하나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김정석, 2003).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의 차이가 두드러진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전문성취형 분야에 진출하고, 여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경제형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동배·이윤화·안인경, 2004). 사회참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의 차이도 매우 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가족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의 사회활동은 봉사활동이나 자아계발 등 인생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다(양순미·홍성례·홍숙자, 2004).

둘째, 연령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건강, 경제, 종교 활동 등 노인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취업 등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집단의 전체 연령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보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와 같은 생활조건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수준은 노인의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직업, 자원봉사와 관련된 참여 욕구가 더 높아지는 편이다(오영희 등, 2005; 정경희 등, 2005). 즉, 교육수준은 노인의 취업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높이며, 실제 취업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경희, 2004).

넷째, 거주지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들의 삶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 능할 개연성이 높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농어촌 노인들이 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시 노인에 비해 사회단체,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일반적인 사회 참여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영희 등, 2005; 정경희 등, 2005). 또한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는 높지만 사회적 관계유형은 고립적인 형태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박경숙, 2000).

다섯째, 건강상태는 사회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는 건강쇠퇴를 경험하는 시기인데,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능력이 감퇴하게 된다. 신체적 불편함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은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 등의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김주현·한경혜, 2001; 김태현 등, 1999; 박경숙, 2000).

여섯째, 경제수준은 노인의 사회참여에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제수준은 경제활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 예컨대 종교, 교육,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소정, 2009). 즉,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으면 사회참여 및 종교 활동 참여도가 더 높아진다(정경희 등, 2005). 반면에, 노인의 경제수준은 직업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력이 높으면 굳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자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노후준비 상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배경 요인이다. 노인에게 있어 연금, 보험 등 적절한 노후준비는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경제수준과 마찬가지로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여덟째, 노인이 과거에 종사하였던 최장기 직업은 노인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고, 공식집단과의 연계 등 사회적 관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이소정, 2009). 즉, 노인의 과거 직업은 현재의 사회적 관계망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관계 및 친밀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과거 최장기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고립형의 사회적 관계를 갖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박경숙, 2000), 농업 등 1차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던 노인들의 교육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가 있다(이경희, 2004).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도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과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현 세대의 노인들은 사회복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를 경험하였기에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는 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다세대간 동거 여부, 동거 자녀의 수 등은 노인의 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노인 여가의 기능

여가 활동은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생리적 필수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간에, 의무성이 최소한이고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적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수봉 등, 2011, p. 30). 이와 같은 여가 활동은 본질상 타인이 대행할 수 없으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얻는 효용은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크게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다(<표 1> 참조; 이운정, 2003).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의 여가는 휴식(relaxation), 기분전환(entertainment), 자기개발(self-development)이라는 효용을 안겨준다. 즉, 여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거나 권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육체적·감정적·이성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창조적 태도를 형성시킨다. 그렇지만 절제되지 않은 여가 혹은 지나치게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여가는 노인 개인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저해하거나 주관적 사고나 판단을 저해하여 퇴폐화·향락화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대중화·획일화되거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표 1> 노인 여가의 기능

구분	순기능	역기능
개인적 측면	▶ 휴식 ▶ 기분전환 ▶ 자기계발	▶ 퇴폐화 · 향락화 ▶ 대중성 · 물개성 · 동질화 · 획일화 ▶ 나태함 · 무력감
사회적 측면	▶ 결속력 향상 ▶ 사회성 발달 ▶ 공동문화의 형성	▶ 여가기회 · 자원의 불평등, 소외 ▶ 공동체 여가문화의 쇠퇴
경제적 측면	▶ 여가수요의 발생 ▶ 관련 산업의 개발	▶ 고급 여가문화 모방 ▶ 소유와 과시에 집착한 소비 만연 ▶ 지나친 여가의 상품화 · 상업화

자료: 이윤정 (2003, p. 121)

개인의 개성의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여가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나태함과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인의 여가 활동은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성을 제고하며, 또 공동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즉, 여가는 여가 동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속력이 향상되고, 그 과정에서 교육적 경험을 가지며, 이는 사회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가 주체들의 공동문화가 형성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는 노인의 여가 기회를 줄이고, 여가 자원의 보유에 있어서 노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고, 공동체 여가문화를 쇠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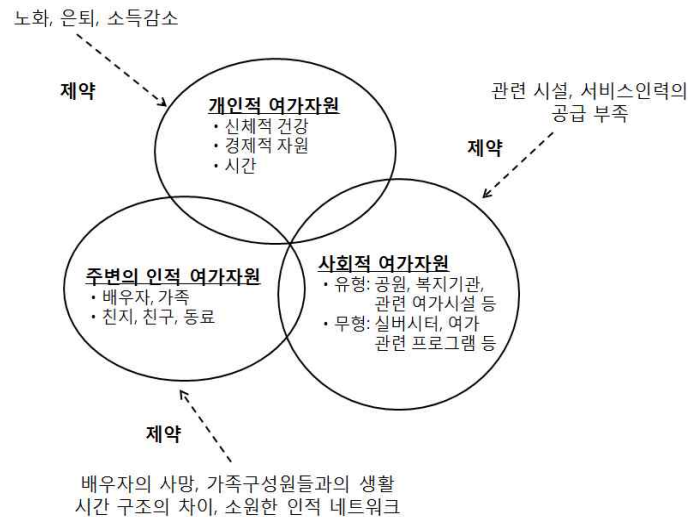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욕구는 여가 수요를 발생시키는 선행요인이다. 이는 개별 여가 서비스의 발달뿐만 아니라 여가 관련 산업의 발달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나친 고급화 · 과소비 · 상품화 · 상업화 등은 건전한 노인의 여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노인의 여가 생활은 여가 욕구의 발생과 그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년기에는 생애 과정 중 가장 긴 여가 생활에 직면하게 되며, 그

만큼 다양한 여가 욕구가 분출되며, 여가 욕구의 충족과정에는 다양한 여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가 욕구의 충족을 위해 투입되는 여가 자원은 크게 개인적 여가자원, 주변의 인적 여가자원, 및 사회적 여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이윤정, 2003). 각 여가 자원은 일정한 제약요건을 갖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해당 여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첫째, 노인이 갖는 개인적 여가자원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자원, 시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개인적 여가자원에는 제약이 따른다. 노화 때문에 여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수준이 저하되거나, 은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여가 비용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변의 인적 여가자원은 여가 활동을 함께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독립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가족 구성원 외의 인적 자원(친지, 친구, 동료, 이웃 등)과의 교제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림 1> 노인의 여가자원과 제약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여가자원은 개인적 여가자원과 주변의 인적 여가자원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유형의 사회적 여가자원으로는 공원, 복지기관, 관련 여가시설 등을 들 수 있고, 무형의 사회적 여가자원으로는 실버시터(silver sitter)나 여가 관련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 실태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은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진다. 문화관광체육부(2010)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여가 활동은 ①문화예술 관람 활동, ② 문화예술 참여 활동, ③ 스포츠 관람 활동, ④ 스포츠 참여 활동, ⑤ 관광 활동, ⑥ 취미오락 활동, ⑦ 휴식 활동, ⑧ 사회 및 기타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체계는 여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람활동도 여가 활동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분류체계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관람 등의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고령자나 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5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김수봉 등(2011)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여가유형은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32.1%가 이를 꼽았으며, 그 밖에 ‘취미오락 활동’ 27.3%, ‘휴식 활동’ 18.0%, ‘스포츠 참여활동’ 15.5%, ‘관광 활동’ 3.1%, ‘문화예술 참여활동’ 2.7%, ‘문화예술 관람활동’ 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10년 후에 희망하는 여가욕구를 조사한 결과, ‘관광 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이 현재 전체의 3.1%에서 26.5%로 증가하여 약 8배 이상 늘어났으며, ‘문화예술 참여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도 현재 응답 비율보다 각각 4배가량 증가한 10.5%와 4.0%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의 여가 활동 장소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0%가 실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외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40%, 사이버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내공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락

공간 30.9%, 종교 및 기타 공간 13.2%, 복지 및 교육 관련 공간 10.1%, 문화 공간 2.5%, 체육 공간 3.0%로 조사되었으며, 실외공간에서는 생활권 공원 12.2%, 관광·체험 공간 11.9%, 체육 공간 2.1%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4,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여가 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5만 원 미만 24.9%, 5만-10만 원 사이 18.8%, 10만-20만 원 사이 28.1%, 20만-30만 원 사이 12.7%, 30만 원 이상 15.5%로 조사되었다.

타임스타일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타임스타일의 개념 및 차원

타임스타일(time-style)이란 Feldman과 Hornik(1981)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 그들은 타인과의 교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그 교류에 할애된 시간이라고 했다. 나중에 소비자의 여가 서비스 선택과 관련하여 타임스타일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Bergadaa(1990)이다. 그녀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지향과 더불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미래 지향적인 소비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휴가를 선호하는 반면, 현재 지향적인 소비자는 휴식 중심의 휴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Bergadaa(1990)의 타임스타일 개념을 더 정교하게 확장시킨 학자는 Cotte와 Ratneshwar(2003)이다. 그들에 따르면, 타임스타일은 비교적 지속적인 자아(self)의 측면이며, 또 꽤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여가 행동과 소비 유형이 타임스타일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이다. 타임스타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의 핵심요소는 사회적 지향(social orientation), 시간적 지향(temporal orientation), 기획 지향(planning orientation), 다중시간적 지향(poly-chronic orientation)이다. 이와 같은 타임스타일의 네 가지 차원은 여가 서비스의 선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회적 지향은 자신의 재량 안에 있는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time for self)으로 범주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한 시간

(time for others) 혹은 남과 함께 하는 시간(time with others)으로 범주화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을 의미한다(Manrai & Manrai, 1995; Rhee, Uleman, Lee, & Roman, 1995). 어떤 시간 단위를 남을 위한 시간으로 분류하는 동기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의무적인 경우도 있다. 요컨대, 타인 지향의 사람은 단체 휴가 또는 친구들과의 단체 쇼핑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자기 지향의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나 혼자서 낚시하기 등의 활동을 즐긴다.

둘째, 시간적 지향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의미한다(Holbrook, 1993; Philipp, 1992). 이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현재의 생활을 즐기거나, 혹은 미래에 닥칠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과거 지향의 사람은,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곳을 방문한다거나 그 시절의 친구들과 장기 전화통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현재 지향의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향락적인 활동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 지향의 사람은 장래가 보장되는 활동, 즉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가 활동, 예를 들면, 요리학원, 골프 과정, 시 낭송회 등에 관심이 많다.

셋째, 기획 지향은 시간 관리의 유형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보통 매우 분석적인 사람(즉, 매우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과 매우 자연적인 사람(즉,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continuum)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분석적인 사람(analytic people)은 매 15분이나 30분 단위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반면, 자연적인 사람(spontaneous people)은 ‘금방 처리할 일’ 정도로 시간을 관리한다. 분석적 성향의 사람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여가 활동, 예를 들면, 복잡한 일정의 외국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연적 성향의 사람은 사전 계획이 불필요한 즉각적인 여가 활동, 예를 들면, 하루 동안의 바닷가 여행을 선호한다.

넷째, 다중시간적 지향은 활동의 수준(level of activity), 즉 한 번에 하나의 일만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양한 일을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선호의 문제이다(Kaufman, Lane, & Lindquist, 1991). 시간의 선형적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임무

를 수행하기를 원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꺼린다. 독서에 몰입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여가 활동이 그러한 예들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시간 사용을 단일시간적 시간의 사용(mono-chronic time use)이라고 칭한다. 그 반면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동시에 다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즐기는데, TV를 시청하면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회의 참석 중에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 사용은 다중시간적 시간의 사용(poly-chronic time use)이라고 불린다. 다중시간적 시간 사용은 단일시간적 활동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용시간(time budget)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동일 시간대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타임스타일의 영향 요인

전술한 바처럼 타임스타일은 여가 서비스의 선택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여가 서비스 소비자들이 어떤 타임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타임스타일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Cotte와 Ratneshwar(2003)은 문화, 연령, 성별, 가족의 사회화 등이 타임스타일의 결정요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공공과 민간 영역의 여가 서비스 공급자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타임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여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화는 타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개인의 문화는 그 개인의 시간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문화에 따라 나를 위한 시간과 남을 위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문화는 타임스타일의 사회적 지향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맥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가를 결정한다(Manrai & Manrai, 1995).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의 고배경 문화(high context cultures)에서는 상호작용이 중시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

회적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서유럽 등의 저배경 문화(low context cultures)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에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조합주의 문화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

문화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중시간적 지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적으로 북미 문화권에서는 단일시간적 지향이 보편적인데, 이 경우 시간은 분할 가능한 것이고 분이나 시간과 같은 작은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된다(Graham, 1981). 보통 한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도록 권장되며, 그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등의 문화에서는 다중시간적 지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은 반복되는 사건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문화는 시간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의 인식은 개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가 과거나 현재, 미래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결정한다. 끝으로, 기획 지향의 차원에서 보면, 문화에 따라 범주화(categorization)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진다. 여러 문화는 인지 모형을 공유하고 인지 범주는 문화에 따라서 변이가 크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들에서 분석적 기획 지향의 정도가 다르다.

둘째, 연령은 개인의 타임스타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보다는 개인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적 지향도 연령의 영향을 받는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더 과거 지향적이다(Bergadaa, 1990; Holbrook, 1993). 그렇지만 연령이 다중시간적 행동과 기획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Cotte & Ratneshwa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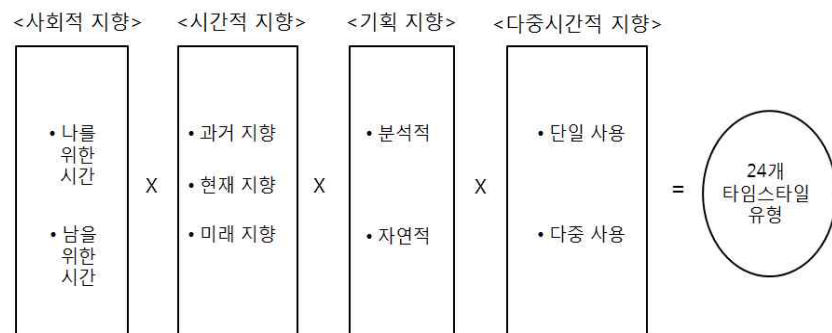
셋째, 성별이 타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몇몇 선행연구로부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사회적 지향이 강한 편이다(Feldman & Hornik, 1981; Manrai & Manrai, 1995). 남성은 여성보다 미래 지향성이 더 강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과거 지향성이 더 강하

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다중시간 지향적이다(Manrai & Manrai, 1995). 반면에, 성별과 기획 지향의 차원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Cotte & Ratneshwar, 2003).

끝으로, 가족의 사회화(family socialization)는 타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가족 사회화 이론에 의하면, 부모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관찰되고 모방된다. 즉, 개인이 시간을 소비함에 있어서 홀로 시간보내기와 남과 함께 시간보내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가는 부모를 모방하거나 혹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된다. 자녀들은 시간이 정밀하게 계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인지의 여부도 부모로부터 사회화된다.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들 역시 다중시간 지향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타임스타일을 고려한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

타임스타일의 네 가지 하위차원, 즉 사회적 지향, 시간적 지향, 기획 지향, 다중시간적 지향의 하위차원을 조합할 경우 24개 유형의 타임스타일이 만들어진다(<그림 2> 참조). 즉, 사회적 지향(2영역), 시간적 지향(3영역), 기획 지향(2영역), 다중시간적 지향(2영역)원의 조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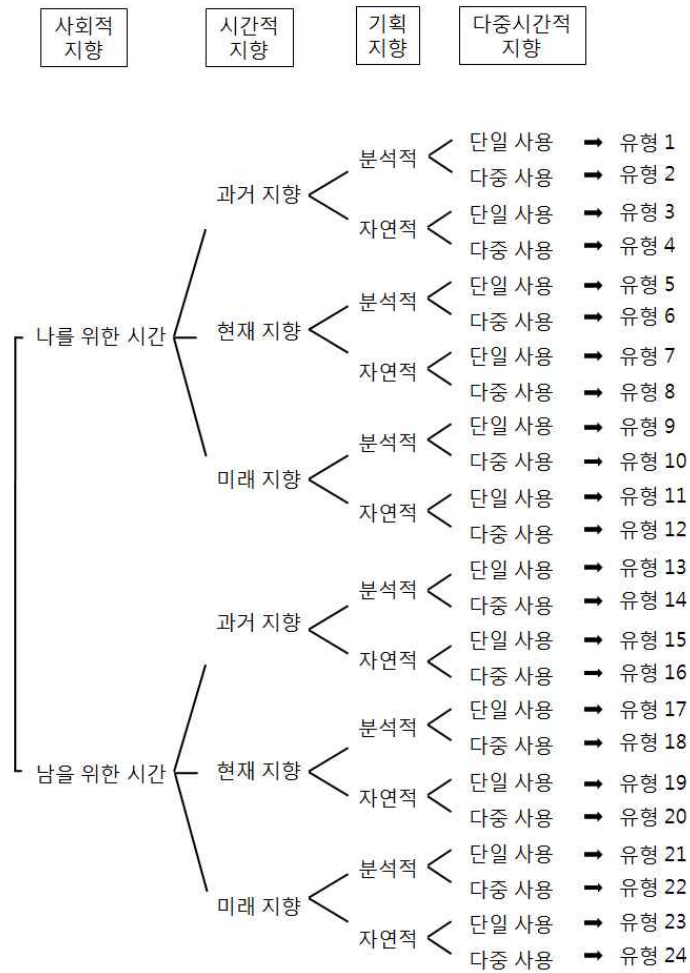


<그림 2> 타임스타일의 하위차원의 조합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통해 24개의 타임스타일 유형이 생성된다.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이와 같은 타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서 <그림 3>처럼 분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이 갖고 있는 타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용 양상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 타임스타일을 고려한 여가 활동의 유형 분류

위에 제시된 노인의 여가 활동의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과 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소정(2009)은 노인의 사회 참여유형을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및 경로당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노인의 사회 참여 유형의 실태를 사실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참여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너무 많은 노인들이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등 이른바 ‘분류의 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임스타일 유형에 따른 여가 활동의 유형은 타임스타일의 하위 차원을 조합하여 도출한 경우의 수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노인의 여가 활동의 유형 분류에 규범적 차원을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여가활동의 유형분류는 노인 여가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타임스타일 유형에 맞는 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시사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와 관련된 함의 및 시사점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여가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최근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여가생활의 향유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에 비해 2010년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33.3%에서 30.9%로 감소하였지만,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1.5%에서 35.1%로 증가하였다(김수봉 등, 2011).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문화·여가 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여가시장 규모는 2001년 28조원 규모에서 2010년에는 4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봉 등(2011)에서 추계된 고령친화 여가시장의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경우, 2011년 여가시장 규모는 약 7조 565억 원 수준이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초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집단에 편입되는 2020년에는 약 10조 1,089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대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시켜 추계할 경우, 2011년에는 약 27조 1,537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36조 6,605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여가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장기요양서비스, 고령친화산업, 노인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서비스 활성화 위한 정책의 개발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타임스타일을 고려한 노인여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입안자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타임스타일 유형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여가 서비스가 개발되어 보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부터 타임스타일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타임스타일 관점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및 서비스 이용을 분석한 연구나 정책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베이비부머 중에 남은 시간을 위한 사용을 선호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한 시간의 사용을 우선시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중에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시하는 정도가 각각 다른 집단이 섞여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중에는 한 번에 하나의 여가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즐기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도 있다. 물론, 베이비부머 중에는 치밀한 여가활동 계획을 중시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러한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는 집단도 존재하고 있다. 요컨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타임스타일에 맞는 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은 자명해 보인다.

둘째, 노인교육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들에게 자신의 타임스타일 유형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유형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타임스타일은 최근에야 논의가 시작된 비교적 새로

운 개념이다. 즉, 장차 여가 서비스의 소비 주체가 될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지 타임스타일 개념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여가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노인 여가 서비스 이용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로 스스로 자신의 타임스타일에 맞는 여가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인교육 차원에서 타임스타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구성원이 자신의 타임스타일에 맞는 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 조건을 갖추어주는 길이 곧 여가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배 · 이운화 · 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 107-127.
- 김수봉 · 권중돈 · 조한중 · 문병윤 · 김지연 (2011).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1-37-1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 55-77.
- 김주현 · 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 209-224.
- 김태현 · 김동배 · 김미혜 · 이영진 · 김예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Ⅱ). *한국노년학*, 19, 61-81.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10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 *한국사회학*, 34, 621-647.
- 박정은 · 원영애 · 최은영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양순미 · 홍성례 · 홍숙자 (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 (2), 145-178.
- 오영희 · 석재은 · 권중돈 · 김정석 · 박영란 · 임정기 (2005). *노인의 삶*

- 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윤종주 (1994). 노인의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 168-178.
- 이경희 (2004).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노년교육학 연구*, 10 (2), 49-77.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 71-91.
- 이윤정 (2003). 노인 여가의 기능과 여가자원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 (2), 117-130.
- 이철선 (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VIP Report*, 09-25 (통권 407: 2009. 7. 7. 발간), 1-13.
- 장후석 (2013).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고령화 사회, 6년 더 일하고 싶다. *VIP Report*, 13-19 (통권 529호: 2013. 6. 12. 발간), 1-15.
-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추용 (2003).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34.
- Bergadaa, M. (1990). The role of time in the action of the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289-302.
- Cotte, J., & Ratneshwar, S. (2003). Choosing leisure services: The effects of consumer timestyl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7, 558-570.
- Feldman, L., & Hornik, J. (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407-419.
- Graham, R. (1981). The role of perception of time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335-342.
- Holbrook, M. (1993). Nostalgia and consumption preferences: Some emerging patterns of consumer tast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245-256.

- Kaufman, C., Lane, P., & Lindquist, J. (1991). Exploring more than 24 hours a da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polychronic time u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392-401.
- Manrai, L., & Manrai, A. (1995). Effects of cultural-context, gender, and acculturation on perceptions of work versus social/leisure time usa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2, 115-128.
- Philipp, S. (1992). Time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Perceptual & Motor Skills*, 75, 659-664.
- Rhee, U., Uleman, J., Lee, H., & Roman, R.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The Retirement of Babyboom Generation and Leisure
Service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ime-style**

Kyung Ho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506-714

Older people have been reported to spend a great deal of time engaged in a variety of leisur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view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ime-style and to draw out policy implications in the realm of old people's leisure activities. Time-style characterizes a set of people's decisions relating to the allocation of time among various activities involved in their consumption. Time-style is a fairly enduring aspect of the self, changeable only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Older people's leisure behavior and consumption patterns could be explained by their time-style. Four dimensions of time-style are social orientation, temporal orientation, planning orientation, and poly-chronic orientation. In conclusion, older people's time-style seems to influence the choice and utilization of leisure services. That is, all four dimensions of time-style could have a systematic effect on older people's leisure needs and utilization. Policy-makers should be able to realize the full value of time-style in targeting older consumers.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1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18일)

(논문게재승인일: 2013년 11월 28일)